

중국 조선족 구전민요에 나타난 삶의 모습과 의식

조 태 흠*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항일투쟁에서 사회주의 혁명까지 |
| 2. 이주의 역사 | 5. 맺음말 |
| 3. 고난의 삶과 망향의식 | |

1. 머리말

중국 조선족은 조선인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대량으로 이주하여 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정착한 '이주민족'이다. 이주민족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원문화와의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 문화도 조선 문화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그와는 차이가 나는 부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¹⁾

이러한 조선족 문화의 이중적인 특성은 문학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민중 속에서 전승되는 구비문학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경일, 『중국조선족문화론』 (료녕민족출판사, 1994), p.9.

현재 조선족 사이에 구비전승되는 민요나 설화 가운데는 이주 1세대들이 조선에서 옮겨간 작품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중국에 이주한 이후에 새롭게 창작되거나 변화되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비전승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작품도 상당수 있다.²⁾ 이러한 두 유형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조선족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중국에서 새롭게 창작되거나 변화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족의 구비문학 가운데 중국에서 새롭게 창작되거나 변이된 민요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과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족 이민의 역사는 그들 스스로 ‘눈물의 역사’이며 ‘고난의 역사’요, ‘피의 역사’이며 ‘투쟁의 역사’라고³⁾ 일컬을 만큼, 이주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간고한 투쟁을 거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들은 극한적인 가난에 쫓기고 일제의 가혹한 압박과 수탈을 이기지 못하여 정든 고향과 고국산천을 등지고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매우 특이한 체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특이한 체험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이 시기에 새롭게 생성된 민요들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민요란 일반 민중의 생활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요구와 체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민요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민요 속에 수용되어 널리 전파되고 전승될 수 있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형성된 의식들이 민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식들이 민요에 수용됨으로써 갖게 되는 의의와 한계를 아울러 해명하고자 한다.

2) 김동훈과 김도권은 조선족 구비문학 작품 가운데 조선반도 재래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반도형’이라 하고,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산생된 그 변이와 변종 및 새롭게 창작된 작품을 ‘동북형’이라 구분짓고 있다. [김동훈·김도권, <중국조선족 구비문학에 대하여>,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9》(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3), pp.3-4.]

3) 《중국조선족 이민실록》(중국조선족청년학회편, 연변인민출판사, 1992). p.5.

2. 이주의 역사

조선족의 이주는 청조의 봉금령을 어기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몰래 이주하기 시작한 18세기 초엽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이주는 청조정부가 봉금령을 폐제하고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한 19세기 중엽부터이다.⁴⁾ 19세기 중엽 조선 북부지역에 해마다 극심한 재해가 들어 살길이 막막해진 백성들이 대량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 백성들에게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가하자, 이를 피하여 국경을 넘는 백성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1920년에는 동북지역에 이주한 조선족 수가 이미 45만 명을 초과하였으며,⁵⁾ 일제가 중국 동북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한 9·18사변(1931년) 이후에는 일제의 '조선인 이민정책'에 의하여 조선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파산농민을 대상으로 집합·집단지주가 실시되어⁶⁾ 1945년 광복 직전까지 중국 동북지방에 이주한 조선족은 근 200만 가까이 되었다.⁷⁾

이 시기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90%는 먹고살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다.⁸⁾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그 토지를 약탈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조사'를 통하여 조선의 관전과 황무지를 강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민들의 사유지까지도 몰수하여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강탈하였던 것이다.⁹⁾ 유일한 생계 수단인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일제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유랑민이 되어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제는 자국의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1920년부터 '산미증산계획'을 실시하여 매년 증산계획의 몇 배에 달하는 식량을 농민들로부터 가혹하게 수탈하여 갔다. 그 결과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 농민의 반수에 해당하는

4) 《조선족략사》(조선족략사편찬조편, 연변인민출판사, 1986), p.13.

5) 위의 책, p.33.

6) 류병호, <중국조선족이주개관>, 《중국조선족 이민실록》(중국조선족청년학회 편, 연변인민출판사, 1992) pp.340-349.

7) 주3)의 책, p.4.

8) 리훈구,《만주와 조선인》여기서는 주6)의 글, p.328에서 재인용.

9)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8년에 전국토의 40%에 달하는 임야를 강점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한국현대사》(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1982), p.116.]

48.3%에 달하는 농가가 봄을 넘기기 전에 이미 식량이 떨어져¹⁰⁾ 생계를 이어가기가 막막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토지 약탈과 농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은 조선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유리·이탈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농민들은 국내에서는 더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든 고향과 고국산천을 등지고, ‘배불리 먹겠다’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의 길을 떠났다.

그때 우리 식구는 여섯 이었는데 남의 논을 뒤마지기 부쳤지만 거기서 겨운 낱알은 주인집에 들여놓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겨우 보리쌀이나 줄 얻어다가 산나물이며 남새 따위를 가득 넣어 끓여 가지고 그걸 밥이라고 먹었다. 그나마 다음날 살아갈 걱정 때문에 배불리 먹지 못했다. 이렇게 살아가다간 다 굶어죽겠다 싶어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마침 만주에 가면 땅이 많아 농사만 지으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귀가 솔깃했다.¹¹⁾

그때 우리고장(경북 대구시 동촌)에 일본사람들이 들어와 땅을 차지하고 비행장을 닦는다 군사기지를 앉힌다 해서 땅이 점점 적어졌다. 우리집에서는 남의 땅을 부쳤는데 흉년이 들고 해서 생활이 말할 수 없이 곤란했다. 거의 나물죽만 먹고사는 형편이었다. 이때 일본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만주로 가라고 선전했다. 만주에 가면 땅도 많고 농사도 잘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고향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떠났다. (《실록》p.92)

조선서 살 때는 왜놈들 세력에 억눌리어 자유가 없었고 또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다 걷어 가는 바람에 먹을 것이 늘 모자랐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배불리 먹어보자고 중국에 온 것이다. (《실록》p.164)

위의 글은 조선족의 이주 동기에 대한 이민 1세들의 직접적인 구술 기록들이다.¹²⁾ 이 구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적인 가난

10) 류병호, 앞의 글, p.336.

11) 《중국조선족 이민실록》(중국조선족청년학회편, 연변인민출판사, 1992). p.113.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하는 구술은 인용문 다음에 ‘《실록》p.’ 다음에 인용한 페이지지만 적어서 출처를 밝힌다.

12) 이 글이 실려 있는 《중국조선족 이민실록》은 이민의 역사를 “이민 1세들의 구술을 통하여 수식도 가공도 허구도 없는 그런 진실한 ‘원형’ 형태에서 그대로 보여주자”는 의도에서 이민 1세들의 구술을 그대로 수집 정리한 책이다.

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의 가혹한 압박과 수탈에 쫓겨 정든 고향과 고국산천을 버리고, 오직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왔던 것이다. 일제 침략자들에게 집과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가혹한 수탈을 이기지 못하여 낯선 중국 땅을 찾게되는 이러한 이주 동기는 대다수의 이주민들에게는 공통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과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한 다음의 노래는 쉽게 공감을 얻어 널리 불려지게 되었다.

산천초목 젊어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무산자 누구냐 탄식마라
부귀와 빈천은 들고돈다. (이하 후렴 생략)

밭없고 집없는 동포들아
어디로 가야만 좋을가보냐

괴나리 보짐을 뒹어나지고
백두산 고개길 넘어간다.

감발을 하고서 백두산 넘어
북간도 별판을 해매인다.

<신아리랑>¹³⁾

민요는 민중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면서 그들의 삶과 의식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상이 반영되거나 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노래되기 마련이다. 조선족들은 일제의 압박과 수탈 때문에 모든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고 이국땅을 떠돌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들은 이처럼 고달픈 생활 속에서 노래로써 삶의 애환을 달랬던 것이다. 처음에는 전래의 민요를 노래하며 삶의 애환을 달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활과 체험, 그리고 그들의 처절한 심경을 담아서 노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래 속에 처음 담긴 내용은 한 개인의 개별적인 체험이나 생각이었지만, 이 체험이나 생각이 전체의 공감을 얻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

13)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민간출판사, 1990). p.47-48.

어 전승된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⁴⁾

<신아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땅을 잃고 집도 잃어 살길이 막막해진 농민들이 괴나리봇짐을 등에 지고, 정든 고향을 버리고 고국을 등지고 백두산 고개를 넘어 북간도 벌판을 헤맨다는 이 <신아리랑>의 내용은 처음에는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삶을 노래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경험은 바로 북간도로 이주한 조선족 모두가 겪은 일이며, 그 백두산 고개길은 그들 모두가 눈물로 넘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노래에 표현된 이주의 이유나 그 과정은 벌써 한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을 넘어 이주민 모두가 경험한 공동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들이 이미 체험한 고난은 바로 우리 민족 전체의 고난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켜 이 노래는 간도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까지 전해져서 널리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¹⁵⁾

이처럼 전승과 함께 항상 재창작되는 것이 민요의 본질이다. 다만 사회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새로운 창작은 부진하며, 개인적인 개작 정도에 그치나 시대가 바뀌고 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경험이 민중 전체의 마음을 뒤흔들 때 새로운 창작이 비약적인 성격을 띌 수 있다.¹⁶⁾ 이 시기에 극한적인 가난과 일제의 가혹한 압박과 수탈을 이기지 못하여 이국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14) 임재해는 구비전승이 역사적인 전승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하고, 형식과 구조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공인된 유형성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임재해, <민요의 사회적 생산과 수용의 양상>, 《한국의 민속예술》(문학과 지성사, 1988). p.259]

15) <신아리랑>은 《조선의 민요》(성경린·장사훈 공편, 국제음악문화사, 1949)에도 실려있어 조선에서도 널리 불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노래는 당시 북간도에 살았던 崔榮翰의 <朝鮮民謠論> [《민요의 연구》(최철·설성경 엮음, 정음사) p.140] 에 의하면 간도지방에서 많이 불렸다고 한다. 이 노래가 구비전승되는 민요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어디에서 생성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노래의 내용과 그러한 내용이 전승집단의 공감을 얻어야만 널리 전승될 수 있다는 구비전승의 성격을 고려할 때 먼저 북간도에서 생성되어 널리 전파되었다고 보아야 것이다.

16) 조동일, <근대민요에 나타난 항일 비판 정신>, 《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 1980) p.203.

이주의 체험은 일찍이 우리 민족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것은 또 이주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 민족 전체가 당면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전래 민요가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되풀이되어 불려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삶과 민족적 문제를 폭넓게 반영하면서 재창조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주 초기는 그들은 지난날 고향에서 부르던 민요를 노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과 체험, 그리고 그들의 요구들을 담아서 이런 노래를 재창작하게 된 것이다. 이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이나 심정을 담은 노랫말을 새로 지어서 이미 잘 알려진 전래 민요의 가락에 얹어서 노래하였을 것이다.

문전옥답 다 빼앗기고
거지생활 쉼 말이나
밭잃고 집잃은 벗님네야
어디로 가야만 좋을가나
아버님 어머니 어서 오소
북간도 별판이 좋답디다

<북간도>17)

이 노래도 역시 고향의 문전옥답을 다 빼앗기고 막막한 심정으로 방황하다가 북간도 별판을 찾게 되는 이주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북간도>는 형식상으로 매우 새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리랑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아리랑은 '3음보격 2행시'가 기본적인 형식이다. 다만 아리랑은 가창되기 때문에 한 음보 내에서의 음절수가 다양하며, 한 시행 내에서의 음보수가 변화하기도 하지만 시행은 언제나 두 행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간도>는 전체 6행으로 한 작품을 이루고 있으나 그 의미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1행과 2행, 제3행과 4행 그리고 5·6행이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어서, 2행이 세 번 중첩되어 있는 형식이며, 그 율격은 3음보격이 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노래의 제1·2행은 <본조아리랑>의 4연과 유사하며,¹⁸⁾

17)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 권철 주편, 연변민간출판사, 1990), p.46.

18) <본조아리랑> 제4연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문전의 옥토는 어찌되고 / 쪽박의 신세가 된 말인가” (성경린·장사훈 공편, 앞의 책, p.3.)

제3·4행과 제5·6행은 조선에서 불렀다는 <신아리랑>의 제5연, 7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¹⁹⁾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북간도>는 아리랑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새로운 이주 체험과 심경을 그 가락에 담아 부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재창작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리랑의 후렴부분이 변화되고 외면상 6행으로 짜여진 것은 다른 측면에서 해명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북간도>는 전래의 아리랑의 가락에 그들의 새로운 삶을 담아 노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족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민요는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살림살이에 쪼들리어 남편이 고향을 떠나며 안해가 고개 너머 떠나가는 랑군을 눈물로 바래는 처참한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봉건통치의 압박착취 밑에서 가정이 파산되어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조선족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묘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조선족 인민들은 부모, 처자를 그리울 때이면, 아리랑을 불렀다”고²⁰⁾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일부로서 이 아리랑을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처럼 아리랑을 불러오는 가운데 이 아리랑의 전승가사만으로는 자신들의 새로운 체험이나 삶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이 아리랑의 가락에 얹어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가사를 창작하여 불렀던 것이다.²²⁾ 이와 같이 아리랑의 가락에 의하여 이주의 과정을 노래한 민요로는 <북간도 감시다>²³⁾나 <부모동생을 다 리별하

19) <신아리랑>의 해당 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밭있고 집있을 동무들아 / 어디로 가야만 좋을가보냐” (5연),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소 / 북간도 별판이 좋다 러라”(7연) (성경린·장사훈, 앞의 책, p.5-6.)

20) 《조선족략사》(연변조선족략사편찬조 편, 논장, 1989), p.296-297.

21) 김시업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나 고정적 기능을 가지는 성격의 노래에다는 새로운 현실과 체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양식하면서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누구라도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필요로 하는 기반 위에 이 아리랑이 형성,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시업, <근대민요 아리랑의 성격형성>,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임형택·최원식편, 창작과 비평사, 1985), p.230.]

22) 강동학은 정선 아라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아라리가 음악의 특성, 가창 방식, 그리고 가사 구성의 형식 등에서 창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내기에 알맞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표출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사의 자작과 개작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하였다. [姜騰鶴, 《旌善아라리의 연구》(집문당, 1988), p.29.]

23) 박금숙이 창하고, 김태갑 채집한 <북간도 감시다>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아

고>²⁴⁾ 등이 더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²⁵⁾

이러한 이주 과정과 그 삶을 담은 민요는 비단 아리랑의 가락에 의해서만 재창작된 것은 아니다.

이주초기에는 조상이 물려준 민요들로 고달픈 애환을 달랬지만 해와 달이 지나면서 이국땅에 정착생활을 노래한 민요들이 수없이 이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입으로 전해지면서 구전창작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50년대부터 중국땅에서 수집 정리한 조선민족 민요만 해도 500여수나 된다. 물론 그 중에는 조상이 물려준 민요들에 대한 새로운 개작도 있었다.²⁶⁾

이 글에서 보면 조선에서 전래된 민요를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노래한 많은 작품들이 재창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 구전문학에 대한 계통적인 채집활동과 심입된 연구작업이 따라가지 못한데서 그 당시 구전문학의 전모를 보아낸다는 것은 자못 어려운 일이다”²⁷⁾라는 언급처럼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구전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활동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집된 자료마저도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모두 봉건사상과 민족주의를 설교한 ‘독초’로 몰려 모조리 소각되었기²⁸⁾ 때문에 이 시기의 자료는 대단히 희소하다. 이런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버지 어머니 복간도 감시다 / 거기는 살기 좋고 농사도 잘된대요 / 차라리 왜놈 없는 그땅에 가서 / 마음놓고 철을맞춰 농사합시다”. [《중국조선족문학선집(구비문학편 하)》(민족출판사, 1993) p.827.]

24) <부모동생을 다 리별하고>는 모두 3연으로 된 노래인데, 그 제1연의 노랫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부모동생을 다 리별하고 / 아리랑 고개로 돈벌러간다” [리상각,《조선족 구전민요집》(료녕인민출판사, 1980). p.57.]

25) 임재해는 민요의 가락은 재창조를 허용하지 않아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실은 재창조의 폭이 커서 가변성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민요는 일정한 유형성을 지니면서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유형성이란 동일한 가락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임재해, 앞의 글, p.265)

26) 김남순, <음악사>, 《예술사》(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4) p.28-29.

27)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1990) p.137.

28) 김동훈·김도권, <중국조선족 구비문학에 대하여>,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9》

삿길>은 이 시기의 이주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작품이다.

늑다리 황소 느린 걸음/ 쪽수레는 덜컹덜컹
누더긴 다 버리고/ 안해는 질그릇만 이고 가네

타향살이 떠나가는/ 우리네의 무거운 발길
리조건 당조건 알게 뭐냐/ 땅 있는 곳 찾아간다네

정처없이 가는 늑다리소야/ 천애지각 가더라도
생지옥만 벗어나면 되리니/ 어서 걸음만 재우쳐라

안하여 속을랑 태우지 마소/ 우리 살 곳 꼭 있으리니
비옥한 산천 해살이 넘칠제/ 씨앗뿌려 농사 지으리.²⁹⁾

이 노래는 조선 이주민들이 극빈한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나는 이주의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에 쫓겨 고국을 등지고 이국땅으로 떠나면서도 언제나 누더기 몇 벌을 싣고 보따리에 쪽박 하나 뿐인 맨손이었다. 이처럼 당시 이주를 떠났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수공민으로 처자와 식구들을 이끌고 살길을 찾아 정처 없는 이주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현 삿갓에 흙옷바람으로 두만강을 겨우 건너왔다>
<집이란건 술 하나에 옷걸지나 바가지 같은것뿐이었다>
<고향을 떠나 누대기 몇벌을 싣고 보따리를 이고지고 만주로 떠나왔다.>
<물건이라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도중에 물을 먹어야 했으니 그저 바가지만 가지고 떠났다.>
<우리는 이불에 입을 옷을 한테 꿰저가지고 짚신을 신은채 길을 떠났다.>
<그때 가지고 떠난 가산이란 질구방아, 쪽지게, 호미, 쪽박 같은 것 뿐이었다.>
<집에 있는 쌀을 뽀뽀 긁어서 미시가루를 만들어 메고 이 빠진 쪽박을 뒤개 차고 북으로 걷기 시작하였다.>³⁰⁾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3), p.6.

29) 《조선족략사》(연변조선족략사편찬조, 논장, 1989). p.80 및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1990). p.46-47 참조.

30) 김경일, 앞의 책, pp.124-125.

이처럼 홀웃바람에 보따리 한 개와 쪽박 하나밖에 지니지 않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고국을 등지고 낯선 이국땅을 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생지옥’이라 인식하였으며, 그 생지옥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리조전 당조건’ 개의치 않겠다고 노래함으로써 이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눈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다. 일제의 모진 탄압과 수탈에 쫓겨 살길을 찾아 떠나는 광경을 노래한 민요로는 <뉘라서 간도가 좋다더냐>가³¹⁾ 더 있어서 이 시기 이주의 실상을 살펴 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이주의 역사를 노래한 민요가 새롭게 생성되고 이 노래가 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전승되었다는 사실은 이 민요에 표현된 삶과 고통이 바로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요, 그들 모두가 겪었던 고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의 민요 속에 형상화된 이 삶의 모습이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속에 내포된 심각한 아픔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고난의 삶과 망향의식

중국의 동북지방은 조선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살기 좋고 농사도 잘되는’ 그러한 ‘지상의 낙원’이 아니었다. 이 지역은 청조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근 200여 년간 봉금령을 실시한 결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원시림이나 황무지로 남아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초기의 이주는 바로 이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질문화의 접촉, 충돌에 따른 문화적 적응보다도 자연·지리환경에 따른 적응이 보다 더 절박하게 나섰다고 할 수 있다”라고³²⁾ 한 지적처럼,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국땅에 온 조선족 농민

31) 《중국조선족문학사》에 소개된 이 노래의 일절은 다음과 같다. “뉘가 간도가 좋다더냐 / 가자 어서 가자 하늘땅 잇대인 저곳애로 / 앞에는 사막이요 뒤에는 민둥산일세 / 아 전땡 한개만 있어도 갈수 있을 것을 / 대관절 가야느냐 돌아서야 하느냐 / 일이십리를 더 걸을수는 있는데”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1990). p.137.]

32) 김경일, 앞의 책, p.26.

들은 이 원시림과 황무지를 개척하고 가꾸어 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힘들여 원시림과 황무지를 개간해 놓으면, 이러한 땅에도 모두 주인이 있어,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기거나 소작료란 명목으로 착취당하여 여전히 극빈한 생활을 면할 방도가 없었다. 더욱이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뒤에는 그들의 압박과 수탈은 더욱 혹심해져 목숨조차 제대로 부지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 그 자체가 문제였다. 그러나 이들 이주자들은 낯선 타국땅에서 누구하나 의지할 수 없었으며, 어느 한 곳 호소할 데도 없었다. 그들은 다만 오직 살길을 찾아 탈버둥치며 고난의 삶을 이어 나갔다.

집이란 하늘이 다 내다보이는 자그마한 초가집이었고 갈개는 수수대로 대수 엮은 것이었고 창문은 구멍이 숭숭 난 종이조각으로 바른 것이었다. 먹는 것이란 물이 툭툭 튀는 강냉이였다. 그리고 들던 소리와는 달리 중국의 땅도 마음대로 일구는 것이 아니고 한패기 한패기씩 다 임자가 있어 소작료를 내지 않고서는 부치지 못하였다. (《실록》p. 214)

후에는 또 심양가기 전의 조양진이라는데 가서 왕가 성을 가진 지주네 집에서 머슴질을 했다. 우리는 무산에서 온 아주머니까지 셋이서 고방에서 잤는데 까래가 없어 가마니랑 깔구 헌누대기 이불을 덮구 잤다. 밥두 먹다 남은 찌꺼기를 구들에서두 못먹구 땅바닥에서 먹었다. (《실록》p.66)

무진년(戊辰年)부터 흥년이 들었다. 기사년엔 농사를 하려 해도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집집마다 한사람씩 로두구 큰지주네 집으로 량식 꾸러 갔다. 지주는 뜰 수수를 얼마간씩 뒀어주었다. 하도 먹을 것이 없어 산에 가 쭉을 뜯어다 쭉먹을 해먹었고 다 캐여간 감자밭을 두지고 또 두졌다. 쪼신을 신고 눈속에서 배추뿌리를 캐던 생각을 하면 저금도 진저리를 치게 된다. (p. 35)

그해 겨울에 네 살난 큰딸이 천연두라는 몹쓸 병에 걸렸다. 처음엔 원불이 별경게 되던게 썩어서 가새(가위)로 살을 베내니 이빨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게 죽을 먹이니 죽이 불루 막 나왔다. 제 살붙이인 딸의 살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걸 두눈 뵈히 뜨고 보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 문앞에도 못가보고 결국 그 애를 잃고 말았다. 게다가 그 병이 큰아들 영혁이에게 전염돼서 두달만에 또 그 애가 죽어나갔다. 또 한달이 지나서 갓 태어난 아들이 가 굶어서 젖도 안나오는 메마른 에미 젖꼭지를 빨고빨다가 굶어죽고 말았다. 그러니 그놈의 저주로운 세월에 석달 사이에 살붙이 셋을 런던아 잃은 것이다. (《실록》p.43~44)

이 구술들은 그 당시 이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간도의 차거운 눈보라 속에서 수수대로 대충 엮은 초막에서, 또는 남의 집 봉당이나 결방을 전진하며,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그 가나진 겨울을 나야 하였으며, 농사지은 것은 지주나 일제에게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 다 캐간 감자밭을 뒤지고 또 뒤지며, 깊은 눈밭 속에 배추뿌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러한 빈한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민요 <우리 살림>은 조선족 이주민들의 이러한 빈궁한 살림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람마다 벼슬하면 누가 농사짓나
의사마다 병고치면 북망산이 왜 생겨?

어떤년 팔자좋아 고기로 양추질하고
우리는 굶기를 부자집 밥먹듯하네.

우리나 살림은 불에 탄 소가죽
오그라만 들줄 알지 퍼질줄 모르네.

때마다 먹는 밥은 된장에 당콩밥이요
밤마다 자는 잠은 맨붕당의 토끼잠이라.

동삼에 쌀독은 먼지만 풀풀 나구요
요내나 마음에는 재만 풀풀 나구나.

<우리 살림>³³⁾

<우리 살림>은 조선 이주민들의 극빈한 삶을 관념적으로 그리지 않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선 제2연에서는 빈·부의 현실을 대조시켜 이들 사이에 드러나는 모순된 현실을 제시하고, 이어진 제3·4연에서는 가난한 현실의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5연에서는 한겨울에 쌀독이 텅텅 비어 살길이 막막해진 심정을 '요내나 마음에는 재만 풀풀 나구나'와 같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이 눈앞에서 병들어 죽고 굶어죽는 모습을 뵈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은 이미 삶이라 할 수 없는 처절한 생존일 뿐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궁핍이 생존을 위협하여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한

33) 리상각, 《조선족 구전민요집》(표녕인민출판사, 1980). p.96-97.

계를 넘어서게 되면, 노래 속에서는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다. 이러한 분노의 노래는 노래라기 보다는 차라리 절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왔던고 왜왔던고 왜왔던고
부모처자 다두고 왜왔던고
울자고 왔던가 돈벌라왔지
매맞으러 왔던가 돈벌라왔지

왜왔던고 왜왔던고 왜왔던고
부모처자 다두고 왜왔던고
여보소 돈이란 돈자도마오.
돈판이 아니라 살인판이요.

<왜 왔던고>³⁴⁾

아라린지 지랄인지 용천인지 발광인지
당사실로 칭칭감아 한짐 잔뜩 결머지고
남북만을 다 돌아다녀도 내 살곳 없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구려
아리랑 고개로 넘어넘어가네.

<내 살곳 없구나>³⁵⁾

이 노래는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스스로의 삶을 비판하고 한탄하는 노래다. 그러나 민중은 이런 절망과 좌절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마련이다. 그들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찾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되풀이하여 부르면서 그들 자신의 절망적인 삶과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해 가는 것이다. 철저한 현실 인식을 통하여 그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설 마음을 다지는 것이다. 즉, 그들 자신의 절망적 삶이 그려진 이러한 노래를 되풀이하여 부르는 사이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철저하게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것이다.³⁶⁾ 그러므로 민요에는 이러한 신세한탄의 노래가 주가 되지만

34) 《중국조선족문학선집9(구비문학편 하)》(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3), p.623.

35) 리상각, 《조선족 구전민요집》(료녕인민출판사, 1980), p.60.

36) 김영돈은 <민요사실에 드러난 제주민의 삶>에서 “민요를 흔히 신세타령이라 하지마는 오히려 소극적인 신세타령이라기보다 적극적인 삶의 방법과 철리(哲理)가 짙게 농축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요와 민중의 삶》(한국역사

우리는 민요를 탄식의 노래나 패배의 노래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고 또 그들은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또 이런 노래는 바로 그들의 삶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확대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적 현실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바로 우리 민족적 현실 자체를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당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민족적 자아를 발견해 나갔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절망적 삶과 ‘생지옥’의 뒤편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현실인식은 일제에 대한 원망을 넘어 항일외식의 바탕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조선족 이주민들이 이러한 고통스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삶이 한시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언젠가는 이 이국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청산하고 고국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서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이 고향을 그리는 이 망향의식은 그들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탈출구였으며,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두만강을 건너 간도땅에 들어서자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서서 강 건너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언제 조선땅을 다시 밟아볼까!”, “잘 살아가지고 꼭 돌아가야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꾸자꾸 되뇌이는 것이었다.

(《실록》p.34)

그때는 집같은 건 형편없이 해놓고 살았다. 그저 아무때건 고향에 가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깐.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꼭 고향에 가서 산다산다하며 집같은 것도 대수대수 지었댔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마당에 과일도 심지 않았다.

(《실록》p.18)

그래두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기차다. 늙을수록 더 사무치게 그림다. 그래서 내 언젠가 원장보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꼴회를 두만강에다

뿌려주오. '고향으로 가시우!' 하구!"

(《실록》p.69)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90% 이상은 영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위에 구술된 것처럼 그들은 고국을 떠나면서 벌써 돌아올 결심을 굳게 하였으며, 중국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집마저도 대충 지어놓고 살았으며, 하더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마당에는 과일나무 조차도 심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또 죽고 난 뒤에 낫이라고 고향으로 갈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유골을 두만강에 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런 구술들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망향의식'은 이제 하나의 '신앙'으로까지 자리 잡은 것 같다.³⁷⁾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상향'으로 인식되어, 그들은 현실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더욱 간절하게 이상향을 추구하듯이 고향을 그리워하였던 것이다.

팔자 무슨 팔자
나라없이 이곳에 와
갓인 설음 다 겪는고
아 고달픈 이내 팔자

팔자팔자 무슨 팔자
권리없이 돈도 없이
환고향만 그리는고
아 고달픈 이내 팔자

<이내 팔자>³⁸⁾

그들은 이주 초기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향토적 서정이 진솔하게 드러난 전래의 민요들을 부르면서 혈육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지만³⁹⁾ 나라 잃

37) 정판룡은 중국 조선족 문학에 망향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조선족 문학이 점차 자기의 특색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정판룡, <중국 조선족 문화의 성격문제>《중국조선족문화연구》(연변대학출판사, 1993). p.12.]

38) 《중국조선족문학선집(구비문학편 하)》(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편, 민족출판사, 1993). p.881

39) 조태흠, <중국 조선족 구전민요에 나타난 전통의 지속과 변이>, 《한국문학논총》16집 (한국문학회, 1995). p.71.

고 이국을 떠도는 고달픈 생활에 지치면 지칠수록 조선에서 부르던 민요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즉,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들은 전래의 민요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노래를 필요로 하였다. 그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부딪치고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직접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 노래를 스스로 지어서 부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팔월이라 대보름날 추석날에는
 햇임쌀로 정성들여 고운떡쳐서
 조상무덤 산소에다 제를지내려
 남들은 새옷입고 산소가건만
 고향에다 남기고온 할머니산소
 벌초는 누가하고 성묘는 누가할가

<팔월 보름날>⁴⁰⁾

이국이나 타향에서 맞이하는 명절에는 더욱 고향생각이 간절하다. 명절에는 조상에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여야 하지만 멀리 이국에 떨어진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망향의식이 본토와의 혈연적 유대관계, 원 문화공간에의 구심력, 그리고 과거지향의 취향에서 오는 것⁴¹⁾이라면, 결국 이 망향의식은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이들에게 곧바로 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의 산소를 함께 등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망향의식'이 하나의 신앙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이 조상숭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망향의식은 고향과 혈육 그리고 조상이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망향의식을 나타낸 민요에는 위의 <팔월 보름날>과 같이 조상과 선영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 외에도 고향산천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고향생각>⁴²⁾과 감옥에서 가족에 대한 애타는 그리

40) 《중국조선족문학선집9(구비문학편 하)》(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3). p.883.

41) 김경일, 위의 책, p.43.

42) 리상각, 앞의 책, p.53-54.

움을 노래한 <수인의 노래>⁴³⁾가 있는데, 특히 이 <수인의 노래>는 감옥에 있는 남편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고향을 떠난 사정은 다르지만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애틋하기 때문에 넓은 공감을 얻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4. 항일투쟁에서 사회주의 혁명까지

중국 조선족들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갇은 수탈과 압제에 못 이겨 이주의 길을 떠나 이국땅에서 고난에 가득찬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고난의 뿌리에는 언제나 일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바로 일제의 철저한 희생자들이었으며, 고난이 연속되는 그들의 삶은 바로 그러한 희생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 자체가 항일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 전승되는 그들의 노래도 항일의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주의 길에서 부른 노래나, 고난에 찬 삶을 그리는 노래 속에서도 일제에 저항하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북속에 감긴 실은
풀어만 저도
요내속에 감춘 설움
늘어만 가네
들고나 짱짱 놓고나 짱짱
나라 잃고 땅도 없는
우리들의 설움도 함께 짱짱

<베짜는 설움> 2연⁴⁴⁾

베를 짜는 아낙네의 입에서도 '나라 잃고 땅을 빼앗긴 설움'을 노래하며 일제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일부로 불려온 민요 속에는 항일의 감정이나 의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43) 《중국조선족문학선집9》(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3), p.879.

44) 《중국조선족문학선집(구비문학편 하)》(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3). p.882

다.⁴⁵⁾ 이같은 항일의식은 일제의 침략 노골화되자 단순한 원망이나 비판을 넘어 자연스럽게 항일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일제를 피하여 백두산 고개를 넘어 이주의 길을 떠나올 때부터 그들의 의식 속에 항일투쟁은 이미 마지막 고개로서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향의 문전옥답을 다 빼앗기고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피하여 복간도 벌판으로 왔으나 일제의 만행이 이곳까지 미치자 이제 더 물러날 수도, 물러날 곳도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일제에 맞서서 투쟁하는 수밖에는 생존의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고난의 삶을 노래하던 그들의 민요는 이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항일투쟁을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홍대장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군대 가는 길에는 눈과 비가 내린다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오련발탄환에는 군물이 돌고
화승대구심에는 내굴이 돈다.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왜적군대가 막쓰러진다

괴택이 원성택 중대장님은
산고개 싸움에서 승리하였소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왜적군대가 막쓰러진다

왜적놈의 게다짜를 물에 버리고
동래부산 넘어가는 날은 언제나 될가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에헥야
왜적군대가 막쓰러진다

<의병대가>⁴⁶⁾

45) 이 시기 우리 민요에 나타난 항일의식은 조동일이 <근대민요에 나타난 항일 비판 정신> [《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 1980)]에서 이미 다루었고, 특히 아리랑에 나타난 항일해방투쟁의 성격은 김시업이 <근대민요 아리랑의 성격형성>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임형택·최원식편, 창작과 비평사, 1985)]에서 다룬바 있다.

46)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1990). p.50-51 및 《중국조선민족예술론》(임병송 주필, 료녕민족출판사, 1991). p.6 참조. 임병송의 책에서는 이 노래를 <홍범도 장군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노래의 제1·2연에서는 의병대장인 ‘홍대장’의 길과 ‘왜적군대’의 길, 그리고 의병대의 ‘오련발탄환’과 왜군의 ‘화승대 구심’ 사이의 선명한 대조를 통하여 의병대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고, 또 ‘에헴야 에헴야 에헴야 에헴야 왜적군대가 막쓰러진다’는 후렴구를 매연마다 반복하면서 왜적군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두 가지 대비되는 사실을 단순화시켜 대조하는 민요의 전통적인 표현기법과 후렴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요 특유의 정서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의병대가>가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은 전통적인 민요의 가락에 맞추어 의병대의 활약상을 기리는 내용의 새로운 노랫말을 창작하여 노래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전통민요의 가락에다 항일투쟁의 내용을 담은 노래로서 항일유격대에게 패배당한 일본군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한 <왜호박>과⁴⁷⁾ 유격대의 활약상을 그린 <유격대>⁴⁸⁾ 등이 있다. 이 노래들은 그 당시 반일무장대오 내에서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 속에서도 널리 애창되었다고 한다.⁴⁹⁾ 이러한 항일투쟁의 민요들은 항일혁명가요와 함께 대개 항일유격근거지 중심으로 창작·보급되었던 것이다.

항일가요는 항일유격근거지에서 대중화한 문학형식이였다. 이러한 항일가요들은 어떤 것은 항일련군전사들이 창작한 것이었고 어떤 것은 항일군중들이 창작한 것이였다. 어떤 것은 원래의 가요에다 시대의 내용을 담아 개작한 것이였고 어떤 것은 원래의 민요와 조선족의 전통적인 가곡에다 새로운 내용을 담은 가사를 붙인 것이였다.⁵⁰⁾

47) “호박은 가을에야 따는줄 알았더니 / 겨울에도 호박은 풍년이라네 / 공산군 <토벌>에 오르령거리며 / 거뜨머뜨 떠났던 황군나리들 / 울적에는 그 위풍 어데로 갔나 / 수레마다 마대를 싣고 오기에 / 동글동글 무엇이나 물어봤더니 / 백두산에 심어났던 호박이라니 / 일년사철 잘도 따는 왜호박이라네”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1990). p.194]

48) “뒤동산의 딱따구리 / 참나무벌레만 잘 잡고요 / 동서남북 유격대 번쩍 / 왜놈의 대가리 잘도 까놓힌다네//알마당의 함박꽃은 / 바람만 불어도 방긋 웃고요 / 언제나 잊지 못할 유격대는 / 인민에게는 언제나 웃음이라네” [《중국조선족문학사》p.193]

49)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1990). p.51.

50) 황룡국 주편, 《조선족 혁명투쟁사》(료녕민족출판사, 1988). p.182.

항일유격근거지에서 창작되고 대중화된 항일혁명가요는 그 창작 방법에 따라 두계열로 나눌 수 있는 데, '가요에 시대의 내용을 담아 개작한 것'과 '민요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가사를 붙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⁵¹⁾ 이 혁명가요와 항일민요는 그 속에 담긴 정신이나 시대적 사명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에 사용된 음악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서로 달랐다고 생각된다.

혁명가요들은 우선 혁명의 필요에 따라 짧고 소박하고 간결한 선율에 다절 가사라야 하며, 전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군가형식이 많고, 전투를 위해 복무할 혁명가요이므로 그 내용에서 강력한 선동성, 호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⁵²⁾ 그러나 유격근거지에는 작곡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구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알맞은 외국의 혁명가요나 당시에 발표되었던 대중가요, 계몽가요 그리고 동요곡 등에 항일 내용의 가사를 붙여 이러한 혁명가요를 창작했던 것이다.⁵³⁾ 여기에 사용된 곡들은 모두 강력한 선동성이나 호소력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힘차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2박자의 노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혁명가요들은 대개 항일혁명가요의 유형상 유격대 전사들의 전투적 사기를 북돋우며 전선으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노래, 대중에게 혁명적 이치를 밝혀준 교양적 목적을 가진 노래, 후대 교양을 위주로 한 어린이들의 혁명가요, 그리고 무산자의 각이한 기념일을 기념하는 노래⁵⁴⁾ 등에 적합하여 이러한 목적의 노래에 주로 사용되

51)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 두계열을 노래를 구분할 때는 '가요에 새로운 내용을 담아 개작한 것'은 '혁명가요'라 하고 '민요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가사를 붙인 것'은 '항일민요'라 칭하고 이 둘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항일혁명가요'라 한다.

52) 최순덕, <음악사> [《예술사》(북경대학교조선문화연구소, 민족출판사, 1994)]의 p.97-98에 실린 내용을 필자가 요약한 것임.

53) 당시 다른 곡을 사용하여 혁명가요를 창작한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혁명가요 《인터나쇼날》을 비롯한 구라파 혁명가요 <적기가>, <로동자의 노래>등은 조선문으로 번역되어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동요곡 <고드름>(윤극영 곡)을 <여성해방가>로, 1931년에 창작된 가요 <봄노래>(김서정 곡)를 <어머니의 리별>로, 동요곡 <수레>(홍난파 곡)를 <아동단가>로, 계몽가요 <권학가>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사를 넣어 <불평등가>로, 계몽가요 <소년야구가>를 약간 개변시키고 새가사를 넣어 <결사전가>와 <소년군가>로 된 등이다. [임범송 주필, 《중국조선민족예술론》(료녕민족출판사, 1991). p.97-98]

54) 항일혁명가요의 유형분류는 최순덕의 앞의 글, p.87-97에서 발췌한 것임.

었다.

그러나 항일민요는 주로 <아리랑> <양산도> <어랑가> <육자배기> 등의 민요에 혁명적 내용의 가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⁵⁵⁾ 그런데 <아리랑>은 세마치 장단에 맞춰 부르고⁵⁶⁾ <양산도>도 세마치 장단에, <어랑가>는 굿거리 장단에 그리고 <진육자배기>는 진양조 장단이지만 <자진육자배기>는 세마치 장단에 맞추게 되어있다. 세마치 장단이나 굿거리 장단 그리고 자진모리 장단 등은 모두 3박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쾌한 가락에 흥겹게 부른다. 따라서 이 곡들은 씩씩하고 선동적이며 호소력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유희적인 분위기에 적합한 노래다. 따라서 민요의 전통적인 선율에 바탕을 둔 항일민요들은 항일혁명가요의 유형 가운데서도 일제 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풍자한 노래이거나 휴식의 한 때를 즐길 때 부르는 노래 등에 적합하여 이러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일혁명가요는 “혁명투쟁과 긴밀히 인민을 단합, 교양하고 적을 타격하는 유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으⁵⁷⁾ 이 과정에서 항일민요는 항일혁명투쟁에서 항일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양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우리 민요의 가락과 장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혁명가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항일민요나 혁명가요들은 항일유격근거지에서 창작되어 그곳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이 노래들은 혁명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인민을 긴밀히 단합하여 교양하고 적을 타격하는 ‘유력한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격대 근거지에서는 항일혁명가요 보급활동을 광범위하게 벌렸다. 근거지의 ‘아동유희대’, ‘연예대’ 및 유격대의 ‘문화공작반’은 항일혁명음악의 전파자들이었고 또 창조자들이었다. 근거지의 야학교와 소학교들은 혁명음악보급의 주요한 장소였다.⁵⁸⁾

55) 김덕균, <해방전 조선족 음악>, 《길림조선족》(김철 주필, 연변인민출판사, 1995), p.528.

56) 아리랑은 불리는 지역에 따라 그 장단이 일정하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가장 널리 퍼지고 많이 불린 ‘본조 아리랑’이나 ‘신아리랑’은 세마치 장단으로 부른다.

57) 최순덕, <음악사>, 《예술사》(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민족출판사, 1994), p.65.

58) 최순덕, 앞의 글, p.65.

항일유격근거지 내에서는 혁명가요나 항일민요를 이처럼 교육을 통하여 보급시킴으로써 민중에게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해방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쟁의 도구로 삼았다. 물론 민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민요의 가락에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노래하는 것은 그 가락이 이미 민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친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중들 사이에 전파되는 속도도 매우 빨랐을 것이며, 그 효과도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민요가 민중들 속에서 자연적으로 전파되고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이러한 의식을 교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보급시켰을 때, 일반 민요와 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민요가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예는 사회주의 혁명투쟁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에 있어서 항일투쟁은 사회주의 혁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에 중국 동북지역에 창설된 각 지역의 항일유격근거지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만 보아도⁵⁹⁾ 이 지역의 조직적인 항일투쟁은 사회주의 혁명과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1945년 항일전쟁에 승리하자 중국공산당은 곧바로 항일유격근거지를 동북혁명근거지로 전환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항일투쟁에서 사용되었던 민요는 다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무기'가 되어 이 투쟁을 새롭게 담아내기 시작하였다.

태항산이 후닥딱 허물어지는 소리에
장개석이 대갈통이 에루와 열두쪽 나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럼마 디여라
연사 연이로구나

우루롱 우루롱 팔로군 대포 소리에
끝끝내 남경이 에루와 해방이 되었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럼마 디여라
승리의 소식이로다

<새어랑타령>⁶⁰⁾

59) 황룡국 주편, 《조선족혁명투쟁사》(료녕민족출판사, 1988). p.261-269.

60) 《조선족민요곡집》(연변문학예술연구소편, 1982). p.846.

이 <새어랑타령>은 <신고산타령>에 노랫말만 바꾸어 창작한 것이다. 다만 이때 물리쳐야 할 적은 일본 침략자가 아니라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로 대치되었고, 쟁취해야 할 목표는 민족해방이 아니라 중국 공산군의 승리일 뿐이다. 항일전쟁에 승리하자 항일유격근거지가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근거지로 전환되었듯이 항일민요는 항일투쟁에서 그 투쟁의 대상을 바꾸어 사회주의 혁명투쟁으로까지 쉽게 연결되어 졌다. 항일투쟁에서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양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민요는 다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유력한 무기'가 되어 사회주의 의식을 고양하여 인민을 단합시키고 사회주의 투쟁의 승리를 새롭게 담아내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요를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수단으로만 삼은 것은 아니다. 저들은 민요를 사회주의 정책의 효과적인 선전 도구로 삼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희망을 민요의 형식을 빌어 노래하고 있다

꽤지나칭칭 나네 칭칭칭나네
새벽하늘 밝아온다 칭칭칭나네
농사짓는 농군들아 칭칭칭나네
공산당이 주신땅을 칭칭칭나네
기름지게 가꾸어서 칭칭칭나네
많은곡식 생산하여 칭칭칭나네
공업화를 지원하자 칭칭칭나네

<꽤지나칭칭나네>⁶¹⁾

1946년 5월 중국 공산당은 공고한 동북근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북해방 지구에서 토지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⁶²⁾ 즉,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 노래에서는 이러한 토지개혁의 새로운 역사적 상황을 모두 중국 공산당의 은덕으로 돌리고 이러한 공산당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여 보답하자는 것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꽤지나칭칭나네>는 자진모리장단을 쓰는 매우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노래이다. 이러한 곡의 분위기는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은 농민들의 기쁨과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이 곡을 택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쾌한 가

61) 《조선족민요곡집》(연변문학예술연구편, 1982). p.867-868.

62) 황룡국, 《조선족혁명투쟁사》(료녕민족출판사, 1988). p.570-578.

락과 함께 기쁨과 흥분에 쌓인 농민들에게 공산당의 공적을 선전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들이 가장 애창하는 아리랑의 가락에 공산당과 모주석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아 노래한 <백산아리랑>이⁶³⁾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의도는 충분히 확인된다.

이처럼 <쾌지나칭칭나네>나 <아리랑>의 형식을 택한 것은 장르의 매체화에 근거한다. 장르의 매체화란 장르의 무기화, 곧 정치적 투쟁의 수단화를 의미한다.⁶⁴⁾ 이러한 민요들은 조선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여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요는 사회주의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선전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에 사회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내용의 가사를 창작하여 노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의식을 담은 이러한 민요도 항일민요와 마찬가지로 민요를 투쟁의 도구나 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미 민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일부로서 전승되는 민요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굴절되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이러한 의도적 굴절현상은 필연적으로 기형을 낳고 이러한 기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63) <백산아리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백산 련봉에 아침해 뜨고 / 해란강 푸른물에 해살 넘치네 // 옛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 오늘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네 // 백두산 높다고 뽐내지마라 / 벼날가리 우글우글 태산을 넘네 // 위대한 공산당 모주석은요 /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네” 《조선족민요곡집》(연변문학예술연구소편, 1982). p.206-207.

64) 김준오, <중국 사회주의 문화정책과 중국 조선족 시가 전통의 변모양상>, 《한국문학논총》16집, (한국문화회, 1995). p.85.

5. 맺음말

중국 조선족들은 가난과 일제의 압박과 수탈을 이기지 못하여 정든 고향과 고국을 등지고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매우 특이한 체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체험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이 시기에 새롭게 창작되거나 변이된 민요들이라 생각하고 본고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과 의식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1. 극한적인 가난에 쫓기고 일제의 가혹한 압박과 수탈을 이기지 못하여 이국땅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족의 이주 체험은 <신아리랑> <북간도> <북간도 갑시다> <부모동생을 다 리별하고> <이삿길> 등의 민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들은 전래의 민요 가락에 자신들의 새로운 이주 체험을 담아서 노래하는 가운데 재창작된 것이다. 그 내용은 처음에는 한 개인의 개별적인 체험이나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전체의 공감을 얻게 되면서 널리 전파되어 전승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노래들은 전래 민요가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되풀이되어 불려지는 과정에서 민족 전체의 공감을 확보하여 역사적인 삶과 민족적 문제를 폭넓게 반영하면서 재창작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민요를 당시 온 민족이 함께 불렀다는 사실은 그 속에 형상화된 삶의 모습이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적 삶이었기 때문이다.

3. 조선족들의 궁핍하고 고난에 찬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는 <우리 살림> <왜 왔던고> <내 살곳 없구나> 등이 있어서 이 시기 그들의 간고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노래들이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스스로의 삶을 비판하고 한탄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은 이런 노래를 되풀이하여 부르면서 그들 자신의 절망적인 삶과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해 갔으며,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다지려는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확대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적 현실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바로 우리 민족적 현실 자체를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당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서의 민족적 자아를 발견해 나갔던 것이라 생각된다.

4. 망향의식을 나타낸 민요에는 <팔월 보름날> <고향생각> 그리고 <수인의 노래>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고향이나 혈육, 조상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조선족의 마음속에서 '망향의식'은 고향과 혈육 그리고 조상이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연결되어 '신앙'으로까지 자리 잡았으며,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이제 하나의 '이상향'으로 인식되어, 그들은 현실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더욱 간절하게 이상향을 추구하듯이 고향을 그리워하였으며 그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그 그리움을 달랬던 것이다.

5. 항일민요는 전통민요의 가락에다 항일투쟁의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의병대가> <왜호박> <유격대> <광복군 아리랑> 등이 있다. 항일민요는 민요 형식을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해방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쟁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항일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양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우리 민요의 가락과 장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혁명가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항일유격근거지 내에서는 민중의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이러한 의식을 교양하기 위한 목적에서의도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민요를 보급시켰는데, 민중들 속에서 자연적으로 전파되고 전승되는 일반 민요와 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6. 사회주의에서는 민요를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책의 효과적인 선전 도구로 삼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희망을 민요의 형식을 빌어 노래하였다. 이런 노래로는 <새어랑타령> <꽤지나칭칭나네> <백산아리랑> 등을 들 수 있다. 저들이 이처럼 민요를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선전하면서 민요 형식을 택한 것은 장르의 매체화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수단으로 사용된 민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일부로서 전승되는 민요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굴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적 굴절현상은 필연적으로 기형을 낳고 이러한 기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이상에서 중국 조선족 민요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과 의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삶과 의식들이 어떻게 민요 속에 수용되어 전승될 수 있었으며 또 이러한 의식들이 민요에 수용됨으로써 갖게 되는 의의와 한계를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현장 조사가 뒷받침되어야만 그 온전한 실상을 밝힐 수 있지만, 연구 대상이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집된 구전문요 자료집이나 기타 문헌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도 언젠가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다시 검증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글을 맺는다.